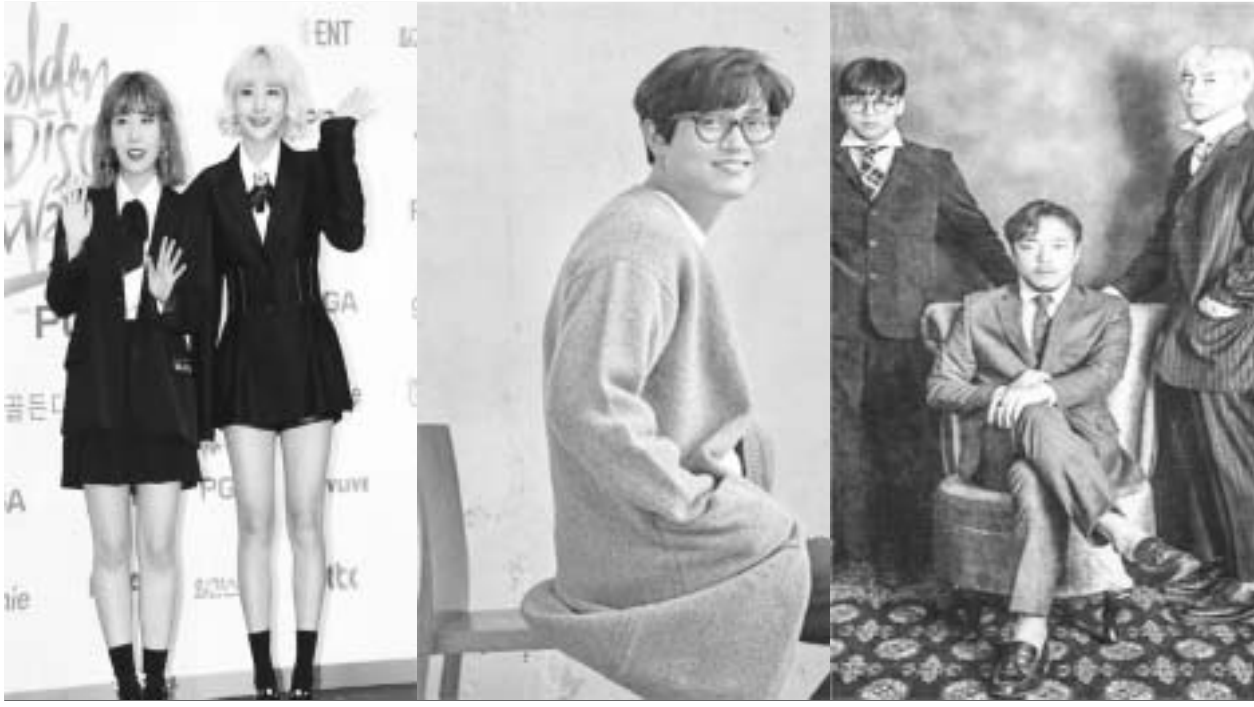


# 마음 휘젓는 감성 발라드...본질에 충실한 뮤지션 귀환



### 김동률 '답장' 차트 상위권 유지...英런던심포니 녹음 참여로 화제 불빨간사춘기 '#첫사랑'도 돌풍...달콤·푹푹한 곡으로 잇단 성공 장덕철 '그날처럼' 1위로 떠올라...無名신인곡 입소문 타고 역주행

연말연시 시끌벅적한 콘서트와 시상식이 지나간 이후 마음을 휘젓는 감성 발라드가 음원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곡들이다.

15일 뮤직플랫폼인 지니뮤직과 멜론 등에 따르면 김동률의 새 앨범 '답장'의 동명 타이틀곡이 12일 발표와 동시에 차트 1위에 올랐다. 이후 이날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률은 1990년대 최고의 발라드 중 한 명이다. 1993년 MBC 대학

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한 후 '기억의 습작' '취중집담'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가 3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앨범은 준비 단계부터 화제가 됐던 것이다.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녹음에 참여했고, 유명 디자이너에게가 커리어를 맡겼다. '답장'은 싱어송라이터의 작곡담

게 곡의 선율과 가사가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김동률 하면 떠오르는 묵직한 느낌도 부드러운 음색까지 더해져 한결 성숙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목소리 자체가 음악" "들으면 치유되는 느낌"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김동률은 SNS를 통해 "뮤지션은 시한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한 장 한 장 앨범을 만들 때마다 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얼마 전 어리고 아까운 후배 한 명을 만나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음악으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률이 데뷔 25년의 은근한 저력을 뽐내며 있다면 이제 데뷔 2~3년 된 몇몇 신인 가수들의 개성도 이에 못지않다. 여성 듀오 불빨간사춘기는 모든

차트에서 10위권에 들며 김동률을 바짝 뒤쫓고 있다. '#첫사랑'이라는 달콤하고 푹푹한 신곡을 통해서 불빨간사춘기는 2016년 데뷔 이래 신곡을 내놓을 때마다 차트 정상권에 올랐다. '우주를 줄게'를 시작으로 '남이 될 수 있을까' '썸 탈까야'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상큼한 음원강제'라는 별명도 얻었다. 가장 큰 매력은 대체 불가능한 음색에 있었다.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가창력은 기본 얼핏 들으면 발라드 같지만 곡의 구성이나 편곡도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들의 높은 인기는 이런 꾸준한 노력과 완성된 품질을 인정하는 팬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3인조 장덕철은 아직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지만 개성 있는 보컬로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그날처럼'이 꾸준히 '역주행'하면서 최근 주

요 차트에서 '넘버원'을 차지했다. 방송 출연 한 번 하지 않고 공감 가는 가사와 멤버 간의 하모니로 신음 음원 강자로 떠올랐다. 남성 솔로인 딘과 문문도 마찬가지로. 딘은 신곡 '인스타그램'이 특정 SNS 브랜드를 언급한 게 문제가 돼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음원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문문도 지난해 발표했던 '비행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간결한 어쿠스틱 사운드와 부드러운 음색이 특징이다. 최윤선 지니뮤직 홍보팀장은 "성시경, 나얼에 이어 올해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성 발라드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넥스의 '유니버스' 등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서도 호소력 있는 곡들이 더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걸 보면 당분간 이 같은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이젠 상상암까지... '막장 드라마'의 진화와 시청자 선택

막장 드라마도 진화한다. 막장 드라마는 일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자극적인 상황과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가는 드라마를 말한다. 개연성보다는 불륜 패륜 폭행 협박 등 온갖 자극적인 설정들을 연달아 나열하며 시청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이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는 소위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막장 드라마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선봉에 섰던 것은 지난해 SBS '언니는 살아있다'를 선보인 김순옥 작가다. 김순옥 작가는 한국 드라마 사에 길이 남은 '내안의 유혹'을 집필하면서 '막장 드라마계의 대모'로 등극한 인물이

다. 그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처참한 비극, 악역에 의해 헤어진 친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척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채 양육이 된다는 설정, 자신의 악행을 덮기 위해 사악한 거짓말을 거둬들이는 아내, 그리고 착하기만 할 뿐 무능한 신력을 품는 질대적인 능력자의 등장과 같은 극단적인 캐릭터와 상황 설정으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줬다. 예를 들면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이유리)과 장보리(오연서), '내 딸, 금사월'의 오혜상(박세영)과 금사월(백진희)의 폭풍 같은 선악 대립 구도를 그리며 시청자를 유입하는 식이었다.

그런 김순옥 작가의 작업은 '언니는 살아있다'를 통해 업그레이드됐다. '언니는 살아있다'는 자신의 사라지도록 채우기 위해 살인 살인 교사 폭행 유괴 협박 절도 등의 끔찍한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양달희(다솜)-이계화(양정아) 연합과 민들레(장서희)-김은함(오윤아)-강하림(김주현)-설기찬(이준) 진영의 치고 받는 난투전을 그리며 주목받았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같이 당하기만 했던 선역에서 탈피, 김은함의 지략 플레이를 중심으로 악역에게 사이다 복수를 선사하며 통쾌함을 심어줬다는 것. 그래서 '언니가 살아있다'는 'RIG 막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인간으로서의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의식해 했던 김 작가의 전작 속 악녀들과 달리 너무나 일찍이만 잔하고 귀엽기까지 한 악녀 구세경(손예은)을 탄생시키며 시청자를 넋두리에 빠지게 하는 독특한 전개



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언니가 살아있다'는 시청률 20%대를 돌파하며 SBS 주말극의 자존심을 세운 바 있다. 소현경 작가도 '막장의 진화'를 보여준다. 막장과 가족극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유지한 탓에 대놓고 막장 작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내 딸 서영이' '황금빛 내 인생' 등 소작가의 작품에는 지식 바꿔치기를 비롯한 막장 요소들이 꽤 적나라하게 나온다.

(전호진)의 상상암 설정이다. 빠른 망덕한 자식을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서태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래서야 가족들은 서태수를 격정하며 치료를 권했지만, 서태수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혼자 죽겠다며 집을 떠났다.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지만, 서태수의 병명이 암이 아닌 상상암이라는 걸 알고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상상암'이라는 건 국내 어떤 드라마에서도 등장한 적 없는 신신하고 황당한 소재다. 지옥 같은 현실보다 죽음이 낫다고 생각한 서태수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시청자들은 '무리한 전개' '막장 전개' '억지 감동을 위한 쥐어 짜내기식 전개' '출생의 비밀 이후 질질 끌던 드라마'가 산으로 갔다는 등 갖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 드라마의 틀을 깨는 자극적인 설정, 그리고 서태수의 투병기와 갈등 포함 과정을 소현경 작가가 어떤 톤으로 그려나갈지도 기대가 쏠리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황금빛 내 인생'은 혹평과 별개로 43.2%(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의 자체 최고 기록(42.8%)을 0.4% 포인트 뛰어넘은 것이다. '황금빛 내 인생'의 과급력은 단순히 시청률에만 그치지 않는다. 드라마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호진은 2017 연말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박시후는 재기에 성공했으며 신혜선은 일약 신데렐라가 됐다. 결국 김순옥 작가와 소현경 작가는 진화한 막장은 언제나 시청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걸 재입증한 셈이다.

## '메이저러너3' '그것만이 내 세상' 내일 개봉, 흥행판도 바뀔까

'1987' '코코' '신과함께-죄와 벌'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메이저러너:데스큐어' '그것만이 내 세상'이 등판해 치열한 흥행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영진위 통합전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메이저러너:데스큐어'는 15.1%, '그것만이 내 세상'은 12.8%로 나란히 예매율 3,4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코'와 '1987'이 1,2위를 형성하며 여전히 흥행 열기를 지피는 가운데 '메이저러너:데스큐어' '그

것만이 내 세상'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먼저, '메이저러너:데스큐어'는 인물의 운명이 걸린 '위키드'의 위험한 계획에 맞서기 위해 다시 미로로 들어간 '토미스'와 러너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렸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오브리언, 토미스 브로더-생스터가 내한행사를 치르며 인지도가 높아졌다. 12편이 각각 300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한 데다 시리즈 마지막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위키드'에 납치된

'민호'(이기홍)를 구하기 위해 '토미스'(달린 오브리언)와 친구들이 적지에 뛰어들었다는 설정이 관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주먹만 믿고 살아온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와 엄마만 믿고 살아온 서번트중후군 동생 진태, 살아온 곳도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두 형제가 난생처음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의 강점은 이병헌, 박정민의 '형제 케미'다. 서로 다른 두 형제가 물결한 형제애를 느끼게

되는 과정이 때문 유쾌하게 때론 몽글하게 펼쳐진다. 이병헌은 기존의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에서 벗어나 편안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캐릭터를 맡아 코믹한 웃음을 선사한다. 박정민은 태어나 처음 피아노에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피아니스트 못지않은 연주실력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서번트 중후군 연기를 뛰어난 솜씨로 소화했다. 두 형제가 손을 맞잡는 과정 속에서 관객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두 영화가 3강 구도를 깨고 흥행판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음력 11월 30일)

<p>▶<b>띠띠</b> 어려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겠다. 동쪽 사람에게 청하면 성사할 듯.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을 잊지 말라. 용, 범, 닭, 개띠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서두르면 실패한다. 10, 11, 12월 생 검은색 길.</p>	<p>▶<b>띠띠</b>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지 남의 것까지 챙기다 오해를 받을 듯. 모든 것 다 털어 시작했던 것 중단하지 말라. 노력자 앞에 실패는 없다. 1, 2, 11월생 속 타는 것 혼자만 알라.</p>	<p>▶<b>띠띠</b>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고, 급하더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곧 어려웠던 일이 성사했음을 알리는 소식이 온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지금 그 자리에서 후회하면 안 된다. 여자로 인해 마음 상하면 더 힘들다.</p>
<p>▶<b>띠띠</b> 아랫사람을 경계하라. 말조심해야 한다. 자칫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용, 개, 닭띠가 아랫사람이면 말조심하라. 돈 놓고 돈 먹는 허황한 생각은 하지 말 것. 1, 8, 11월생 생트집 낸다.</p>	<p>▶<b>띠띠</b> 명예를 떨칠 때가 눈앞에 와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라. 자신감으로 하늘로 날 수 있다. 흥분을 연속 날릴 기회이니 약속한 것 지키고, '가정을 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을 상기할 것.</p>	<p>▶<b>띠띠</b> 몸은 고달파도 득은 있겠다. 투지와 노력으로 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상대가 당신 눈앞에 굴복하리라. 1, 2, 12월생은 승전고를 울리지만, 사랑에는 짜증스러운 날이 될 듯.</p>
<p>▶<b>띠띠</b> 출입을 금하고 하루 근심함이 어떨까. 오후 늦게 집을 나서는 일은 삼가고, 전화로만 연락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오늘 사업은 타인이 해주는 격이 되고 지출 또한 많으니 자, 오, 비 성씨 금전관리 철저.</p>	<p>▶<b>띠띠</b> 기다리는 마음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 내일을 위해 참을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웃음꽃이 피리라. 말, 닭, 돼지띠가 힘에 겹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라. 붉은색이 길하니 단장하라.</p>	<p>▶<b>띠띠</b>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화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기, 자, 오 성씨가 방해자가 될 수 있다. 투기적 행동은 길게 하면 빈손이 되니 허황한 꿈은 빨리 버리라.</p>
<p>▶<b>띠띠</b> 현시대는 혼자 고지식한 성품대로 고수하기에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다. 자기주장만 한다면 발전이 없다. 뒷사람 의견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 매매 건은 풀릴 수 있다. 2, 7, 11월생 애정에 온다.</p>	<p>▶<b>띠띠</b> 인덕이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이 없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이다. 외로워도 홀로 서기를 시도하라. 당당하게 전진하라. 5, 9, 10월생을 믿으라. 깊은 마음씨가 숨어 있다.</p>	<p>▶<b>띠띠</b>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인내심을 갖고 임하라. 일확천금을 노린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가족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자기가 힘들 때 친지나 가족밖에 없음을 상기하라. 3, 6, 8월생 근심함이 줄겠다.</p>